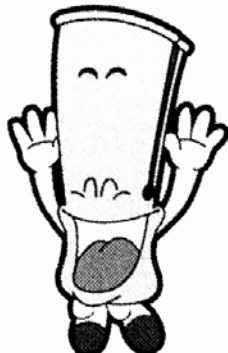


불교 캐릭터 인기 '상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계종 봉축위의 '아기부처님'



진각종의 '죽비' 캐릭터.



해동공사의 캐릭터 '도리'.



와이드스코프의 '제석전'.

최근 중단을 비롯해 개별 사찰에서까지 캐릭터를 개발, 적극 활용하면서 교계의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봉은사가 새로운 불교이미지 만들기 작업으로 전개한 심이진, 아기부처, 동자승, 달마 등 불교캐릭터를 개발하고, 진각종이 종단이미지 통일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단 심벌과 죽비캐릭터를 선보이는 등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에 다가가는 불교 캐릭터 개발이 붐이다. 부산 해동공사도 지난해 목탁을 들고 있는 귀여운 용 캐릭터 도리를 만들어, 불자와 지역민에게 호감을 주는 불교사찰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제 사찰 홍보비디오에도 캐릭터가 등장하고, 부처님 오신 날에도 캐릭터가 주요한 포교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캐릭터를 이용한 이미지 전달과 불교알리기가 본격화된 것이다.

선재동자, 아기부처님, 연꽃 등으로 대표되는 불교캐릭터에 대한 관심은 80년대 후반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의 활발한 움직임에 힘입어, 90년대 중반부터 하나둘 선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연꽃이나 만자, 동자 등을 단순히 상품 디자인에 응용한 정도였으나 점차 불교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발되면서 다양화됐다.

중단-사찰

포교방편 활용

버튼·부채등

팬시상품 다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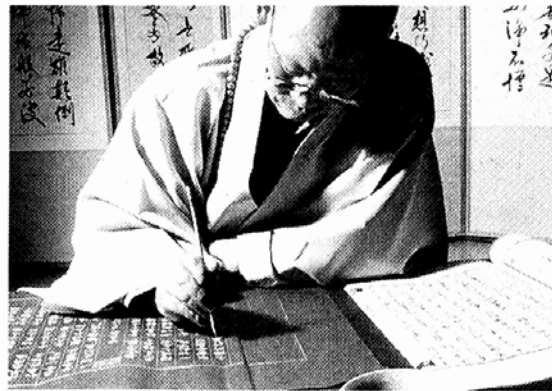


지난 부처님 오신날 대구 남구 사회복지관에서 펼쳐졌던 캐릭터를 이용한 아기부처님 협동화 그리기대회.

이 날로 높아졌다. 불교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이들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팬시 상품들도 선보이고 있다. 핸드폰 줄에서부터 스티커, 티셔츠, 열쇠고리, 버튼, 부채, 인형, 컴퓨터 마우스 등 신세대불자라면 불교캐릭터 상품 한가지쯤은 갖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불교캐릭터와 캐릭터 상품은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로 한 반짝 인기 때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홍보하고 판매할 유동경로가 확립돼 있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상품으로서가 아닌 문화포교방안으로 불교 캐릭터 상품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개발하고 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캐릭터들의 일본 스타일 모양도 창조적인 캐릭터 창작을 위해 지양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캐릭터를 출판문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게임 등에 도입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앞으로의 과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opia.com)



금니 사경에 몰두한 원응스님.



15년간의 결실인 <화엄경>금니사경.

한획 한획 묻어나는 '부처님 향기'

원응스님 화엄경 금니사경전

15~24일 부산서 전시

15년동안 60만자 사경

15년 동안 화엄경 60여만자를 금가루로 옮겨 적은 '화엄경' 금니 사경전이 열려 화제가 되고 있다.

지리산사찰에서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화엄경> 금니 사경을 해온 주인공은 바로 벽송사의 원응 스님. 스님은 15년 동안 80여권의 화엄경 금니 사경을 회향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화엄경> 금니 사경 80여권 외에도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일각경> 등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경전을 위주로 한 작품 80여 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스님이 <화엄경> 금니 사경을 한다는 말을 듣고 동참 발원을 해온 불자들이 금니 사경 경전 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절실한 요청으로 열게 되었다고.

스님은 오자와 탈자를 없애기 위해 봉은사판 <화엄경>을 원본으로 고려대장경 화엄부, 신수장경, 중국장경 등을 참조하여 확인 작업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먼저 먹으로 한 집을 사경하고 먹으로 쓴 것을 옆에 두고

1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심으로 종생들의 평안을 기원하며 금니 사경을 해왔다. 또한 전주에서 금니 사경을 한지를 특별 주문제작, 옛 경전의 모양을 재현하여 가치를 더욱 높였다.

조계종 종정 해암 스님, 총무원장 정대 스님도 이번 <화엄경> 금니사경을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으며, 확마다 부처님의 향기가 묻어나는 원응 스님의 작품은 부산전시에 이어 전국 전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응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대신하는 경전을 통해 맑은 정신세계와 진리를 찬탄하고 환희심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opia.com)

"탑의 모든것 강의해요"

EBS '세상보기' 12·19·26일

정영호 교수 '우리 석조미술'

'탑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불자라면 한 번쯤 가져 봤을 석탑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안방에서 철관식 강의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반경생 석조미술만을 연구해 온 정영호 교수(前 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12일부터 EBS-TV '세상보기' 프로그램의 강사로 나서 '우리 석조 미술의 미'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6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방영되고 있는 이 프로에서는 한국탑의 기원을 비롯 목탑에서 석탑으로 바뀐 유래, 통일신라시대의 석탑 양식 등이 소개된다.

12일 방영된 '목탑에서 석탑으로'에서는 4세기부터 6세기에 걸쳐 활발하게 조성됐던 목탑의 건립과정과 함께 7세기로 넘어가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석탑 불사 과정을 설명했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성된 현존하고 있는 '익산 미륵사지석탑'과 '부여 정림사지 석탑'을 예로 들어 이 탑들의 예술과 문화재적인 가치를 알기 쉽게 조명했다.



◇EBS-TV는 '세상보기' 프로그램에 정영호 교수를 초청, 한국 석조미술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19일 방영된 '석탑의 융성기, 통일신라' 전에서는 불국사, 석굴암, 실상사 등 독특한 아름다움을 꽃피웠던 통일신라시대 석탑 양식의 특징과 그 예술성을 생생한 자료 화면을 통해 소개한다. 이외에도 26일 '석탑의 시대적 개성과 아름다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에 이르는 석탑의 독특한 양식을 시대별로 비교해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총체적 맥을 짚어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전통다도로 한국불교 소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문화적 자긍심이 강한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차가 매력적인 동양의 문화로 인식되는 행사가 독일에서 펼쳐졌다.

한마음선원 독일지원 선다회는 3일 독일 함부르크 성마리아 성당에서 열린 카톨릭의 날 행사에서 한국 전통다도를 선보여 한국문화에 대한 큰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행사에서 선다회 회원들은 섬세한 손동작과 몸짓으로 다도의 기본 법인 탕다, 사찰에서 예불중에 올리는 헌다, 혼례식에서 신랑신부가 정성으로 차를 올리는 혼례다도, 차와 명상을 하나로 이끌어 내는 선다 등을 선보였다. 또한 한마음선원 독일지원장 혜진 스님이 차의 효능과 유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독일인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차 시음 시간에는 한국의 차 맛을 음미하려는 독일인들이 한꺼번에 무대로 몰려들어 한국 차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도 시연에 참석한 함부르크 대학의 크레프트 교수는 "한국의 차가 이런 깊이와 매력을 갖고 있는지 몰랐었다"면서 "한국의 전통문화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깊은 뿌리가 있는 것 같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중소기업청 선정 최우수 아이디어 제품

COOL BAG 물병 가방

휴대용 냉장고로 한여름을 시원하게!!

▶ COOL BAG 물병 가방은?

섬유를 이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열린 물병과 외부온도차이에서 줄줄 흐르는 물방울, 즉, 이슬현상(겔로현상)을 방지하여, 학생은 물병을 책가방에 넣어 다녀도 책이 젖지 않고 자가운전자 및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은 하루종일(최대15시간)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어 좋다. 또한 부피도 작고, PET병을 사용하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다.

▶ 사용법

- PET 병에 물을 2/3 정도 채운다.
- 전체를 열릴 경우 얼음이 빨리 녹지 않아 마실 수 없습니다.
- 냉동실에 넣어 얼린다. (24시간 정도)
- PET병 2개를 교대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얼리는 물의 양은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에 따라 조절
- 사용할 때 나머지 1/3정도 물을 채운다.
- 물병가방에 넣는다.
- 물을 마실 때 편리 하도록 마개 부분은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제작.

▶ 이슬 맺힘 없이 최대 15시간 보냉!!

▶특이 실용신안원제10795호

▶ 제품의 종류

- 0.5L용: 8,000원 (PET 병 포함)
- 1.5L용: 12,000원
- 벨트백: 20,000원
- 색 상: 자주색, 청색, 검정색, 카키색

▶ 제품문의

☎ : 0351)874-2160/2352
E-mail : joia21@hanmail.net

▶ 계좌번호

· 농 협: 201016-52-070562
· 우체국: 100735-0068893
예금주: 정연길

WOOJUNG 우정산업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항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 관불의식, 관육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준순

▶ 전파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02)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